

INTERVIEW **민선8기 시장에게 듣는다**

# ‘스마트 환경도시’ 광명시, 이제부터 시작

박승원 광명시장이 ‘악전고투’ 끝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선 8기의 시작을 열었다. 3기 신도시 사업 등 광명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박 시장의 앞으로 4년도 선거만큼이나 힘든 강행군이 예상된다. 박 시장에게서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 본다.

###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4년 동안 우리 광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그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주시는 시민들께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광명을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변함없이 시민과 함께 일할 것이다.

-지방선거 당시 숏한 난관이 있었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선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재선될 수 있었다. 이번 과정은 제가 항상 우리 시민들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해 왔던 힘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도 더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경청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신·구도심 균형 발전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광명은 뉴타운 재건축 사업들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꾸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하안동·철산동 지역 재건축 사

업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밀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이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구도심 지역과 함께 균형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 신·구도심 균형 발전에 중점 3기 신도시에 자족기능 더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준비도

는 글로벌 문화수도, 지속가능한 자족 경제도시, 스마트·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광명시를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하고 △청년주택 공급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밖에 △GTX-E 노선 유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선 추진 △신안산선 학운역 2026년 완공 등 광명을 광역 거점 도시로 키우고 △안양천 국가정



**박승원**  
광명시장

원 추진 △안양천·목감천 명소화 사업 확대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명을 정원문화도시로 만드는 등 새로운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겠다.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대기하고 있다. 난개발을 예방할 방법은

3기 신도시가 올해 빠르면 9월 전까지는 지구 지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하안2 지구는 지난달에

지구 지정이 됐다.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공사 중에 있고 구름산 지구는 현재 보상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 작업이 부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큰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광명동 쪽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광명동·철산동·

하안동·소하동 지역에 40년 전에 지어졌던 이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시점이 도래해 했고, 새로운 신도시와 함께 균형 있게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해줘야 도시가 서로 균형 있게 성장하고 불평등을 없앨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주택 아파트 지역에 대한 재건축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 아마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고 그에 따라 각 아파트에서 재건축 사업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들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 재개발 사업이나 민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속하려 한다. 그래서 지금 공공 재개발 사업이 중 7구역, 8구역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하동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주면 시가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께서 지난 4년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단 없는 광명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고 주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다하겠다.

우리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와 광명시 공직자들이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도 스스로 주권자로서 모두가 광명시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

박승원 기자

## 민주당 경기도당 “정치적 야합, 민주주의 배신”

이성철 파주시의원·주임록 광주시의원 제명  
“민주당 당론 무시... 국민의힘 의원과 야합”

민주당 경기도당은 7일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하고 당론을 위반한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을 제명했다.

당당은 “이성철 의원은 파주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통해 스스로 결정한 제8대 전반기 의장후보 당론을 무시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 파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해 선출됐다며 ‘주임록 의원 역시 광주시

의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네 차례 의총에서 결정한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야합으로 의장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은 의장 당선 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당에서는 스스로 결정한 당론을 어기고 유권자를 기만한 것은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고 제명처리 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은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바

로 30일 전에 끝난 투표 결과를 인위적으로 뒤엎는 행위이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로 선출된 공직자로서는 목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며 민주당의 위상과 가치를 흔드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에서의 제명 조치와는 무관하게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질이 좋지 않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심판하기 위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성철 파주시의원은 지난 1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뒤 곧바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개원식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피켓을 설치하기도 했다.

주임록 광주시의원은 4일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임록 의원은 “시의장 선출과정에서 야기된 의원 간의 반목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고자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시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창 기자

## “윤석열 부부, 대통령실 사유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특보, 비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5층 부속실을 거의 매일 드나든다”며 “비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가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챙기며 ‘여사 특보’로 불린다”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는 J한방병원의 손녀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를 도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윤 대통령 내외의 NATO 참석에 동행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분명하지도 않은 민간인에게 국가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그대로 제공됐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관용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신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해 7월, 후보자이던 윤 대통령에게 2000만원의 고액 후원을 한 당사자이기도 한다”며 “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씨 관련 비선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사유화라며 비판하고 있다.

뿐 아니다. 윤 대통령은 조카로 여긴다는 친구 아들 황 씨를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위임된 권력을 함유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는 새 정부가 시 작되자마자 대통령실을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있다. 또 다시 새로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일침했다.

홍정윤 기자

## 인천시의회 상임위 첫 행보 펼쳐

문화복지위원회 현장방문  
7개 소관기관 현안 청취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첫 행보로 소관기관 현장방문에 나섰다.

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8일까지 (재)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총 7개 소관기관을 일일이 방문한다.

첫날인 7일에는 (재)인천시사회서비스원·보건환경연구원·인천문화재단 및 인천관광공사 등을 방문, 기관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청취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8일에는 인천의료원·인천시설

공단과 인천여성가족재단 등을 방문해 기관별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원숭이두창 환

자가 발생한 만큼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의료원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요청과 함께 코로나19 기간 큰 피해를 입은 문화·관광업계 및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득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일정으로 소관기관을 방문했는데 감영

안중삼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첫 행보로 소관기관 현장방문에 나섰다.

(사민-인천시의회)